

우리 모임에선

서경교사불자 환경법회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지난 11월 25일 도봉산 망월사 일대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0여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쓰레기 봉투와 집게로 대표소에서부터 망월사를 경유하는 등산로와 문수암 및 해거스님 부도탑 주변에 버려진 오물을 치웠다. 또한 회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산 관동도로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사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교사 불자들이 적극 나설 것을 서원했다.

부경하불동 교도대 위문

하이텔불교동호회 부산경남모임은 1일 불도사 극락선원 정기법회에 참석해 선원장 명정스님의 법문을 듣고, 오후 2시 부산구치소 경비교도대를 방문, 점심을 함께 하고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15명의 회원들은 경비교도대와 함께 오찬을 독려했다.

서울 한빛은 천수경 강의

한빛은행 서울분회에서는 13일 오후 7시 30분 본점 4층 강당 503호실에서 지도법사 법현스님을 모시고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원들은 법현스님의 우리말 천수경 강의도 듣는다.

교정인련 달력 배부

전국불자교정인련연합회는 2002년도 '수용자 달력'을 제작하고 수원지회, 영등포지회, 안동지회 등 전국 42개 지회에 배포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수용자 달력은 교도소 포교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과천 불자회 법장스님 법문

과천청사공무원불자연합회는 14일 오후 6시 과천청사 3, 4동 지하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을 주제로 수석주지 법장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건교부·보건복지부·농림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직장불자회 포교사 '스승같은 도반' 활동

법회집전 주도...조직 활성화 기여  
이왕이면 '나도 자격따자' 호응늘어



◇용산경찰불교회가전국경찰불교회김진홍 고문(포교사)의 집전으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회원 중에 포교사가 있어, 법회를 훌륭하게 진행시키고 교리공부나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실행활동도 기획해,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찰불교회 고문 김진홍 포교사(퇴직 경찰)의 말이다. 김진홍 포교사의 언급처럼, 직장직능신행단체 내에서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불자교정인련연합회는 자체적인 포교팀을 운영하고 있고,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전법팀 발족'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서울시청불자회, 금융단불자회, 교사불자연협회 등에서도 포교사들이 포교팀과 같은 상설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모임의 포교부장 역할을 맡아 법회를 집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직장직능불자회가 스님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일면에는 회원들의 포교사 자격증 취득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 지난 2~3년 사이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한 직장인 불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산하기구인 포교사단에서 직장직능 불자회에 소속된 포교사를 중심으로 '직장 포교팀'을 운영하며 해당 불자회에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직장직능 신행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포교팀을 조직한 전국교정인불자연협회의 경우, 회원 포교사의 활동으로 교정기관 내 불자회를 창립하는 데 적잖게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재소자와 가장 가까운 교정인인 법회를 집전하는 과정에서 재소자와 교정인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것은 물론 범죄 참사률도 증가했다.

서울시청불자회 역시 회원 중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조정봉, 강화평 회원들이 97년부터 법회를 집전하고 있는데, 법회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는 포교사단 내 10여 명의 전·현직 경찰 포교사로 구성된 '경찰 포교팀'의 지원을 받아, 경승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경찰서의 법회마다 참여해 경찰 불자들의 신심을 돕고 있다.

금융단불자연협회의 김윤하 운영위원장은 "직장인 포교사들은 해당 불자회를 주도하며 사찰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사찰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접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스승 같은 도반'이라며 "행원 불자들 중에도 교양대학을 다니며 포교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교사불자연협회 유우자 씨는 "포교사가 되면 책임감이 생겨서 단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직장 내 불교단체도 활기를 띠게 된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 직장직능 담당자인 조양희

신도주임은 직장직능 포교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직장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일시적인데 그치지 않고 현장 포교를 인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자 한자 쓰는 불경  
번뇌심 사르르 녹아요"

경찰청 서예법회 인기



경찰청불교회가 매주 금요일 정오 법당에서 여는 서예법회(사진)가 경찰 불자들의 마음공부는 물론 일반 경찰들이 관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남편서예학원 남편 원장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서예법회에는 평균 20여 경찰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무종교나 타종교인의 호응도 크다는 것. 특히 법회 의식을 하는 대신 반야심경 등과 같은 불교 관련 내용을 한 자 한 자 써가는 것으로 진행돼,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가르침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서예법회를 맡고 있는 민인홍 반장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편안히 마음으로 법당을 문을 두드리고 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불교회는 서예법회 참가자들의 작품을 모아, 내년에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철마는 자비를 싣고...

매월 천원 보시금 적립  
철물협 해해사업 확정  
본청 정동진의장 선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물협)가 본청불자회 정동진 회장(사진)을 철물협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철도인 포교를 위한 전법팀 구성 △신행단체와의 연대 강화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사업을 확정했다.

11월 27일 열린 전국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40여 임원들은 협의체 형식으로 있던 철물협을 전국 규모의 연합회로 재정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 의장 선출에 이어 실무운영위원회를 신설해 공무원불자연협회,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직장직능단체와의 유대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열한다.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2002 철마는 자비를 싣고'는 매월 1인당 1천원을 불우 이웃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철물협은 여성 불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철물협 내 여성 지도자 발굴을 통해 여성 철도인의 포교기반을 다지는 한편, 3월까지 철도인 포교를 전담할 전법팀을 구성하고 사내 인터넷에서의 포교 효과도 높이기 위해 사이버 포교부장을 선출하는 등 포교 대계도 마련했다.

박창식 실무운영위원장은 "철물협이 그동안 본청불자회가 창립되지 않는 바람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승무소 중심으로 개별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회칙 개정과 새 의장 선출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이기호 경제수석  
청와대 불자회장 맡아



청와대불자회 제 6대 회장에 이기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55· 사진이 선출됐다. 청와대불자회(이하 청불회)는 1일 임원회의를 열고, 박준영(국정공보처장) 전 청와대불자회장의 후임으로 청불회 고문인 이 수석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노동부 장관을 거쳐 지난 99년부터 대통령 경제수석을 맡고 있다. 이회장은 옛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전반기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경제개발시대부터 경제정책 입안에 직접 참여해 왔

으며 돈독한 불심으로 평소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불자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청불회는 내년 1월 중 봉행하는 신년법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함께 치를 예정이다. 현재 1백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불회는 96년 8월 박세일, 이각범 당시 수석 등의 주도로 청와대 직원불자회로 창립돼, 각 당 국회의원불자회 및 불교계 지도층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실행 활동을 펴왔다. 오종욱 기자

게시판

알림

- ▲철재어 전달식=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14일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자비의 철재어 30대 전달식을 갖는다. 이날 복지관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위한 초청강연 및 감사패 증정식도 마련한다.
- ▲사랑의 김치나누기=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복지관 현관에서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02)265-9471
- ▲어르신 전통공연=낙동종합사회

복지관은 14일 오전 10시 '어르신 전통공연 발표회'를 개최한다. 관내 5개 경로당 공연팀이 나와 민요, 시조창 등을 선보인다. (051)271-0560

모집

- ▲산수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산수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산수교실은 교과서 예습 및 복습으로 진행되며, 1~6학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02)817-8052
- ▲차량운행 봉사자=송파제가노인복지센터는 밀반찬 배달을 맡을 차량운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배달은 첫째 셋째주 화요일 오후 3~5시에 실시된다. (02)2203-3677

이전

- ▲행원문화재단 사무실=행원문화재단은 1일 서초구 서초동 1603-67번지 강남부속상가 10동 401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586-6521
- ▲고려대장경 연구소=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성북구 안암동 5가 8번지구 중앙상가대 비구니 수행관 4층으로 연구소를 이전했다. (02)797-0585

화족

▲본사 취재1부 김재경 기자는 16일 오후 1시30분 경북 칠곡군 악목면 관호리 그린웨딩파크에서 유경숙 씨와 화족을 밝힌다. (01)7332-0856

이것이 공극의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The Dhammapada

붓다의 법구경은 'dhammapada(담마파다)'라고 불리워진다. 이 이름은 이해되어야만 한다. 'dhamma'는 전 우주에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궁극의 법, 로고스를 의미하며, 'pada'는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구경은 궁극의 법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귀중한 경전을 뜻한다. 붓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아에스 담모 사난타노 (Aes dhammo sanantano) - 이것이 그 법(法)이다, 영원한, 오랜 그리고 다함이 없는.

붓다의 이 경문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명상적으로 그 경문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명상적으로 그 경문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논쟁적인 분위기 속에 있지 말라는 것이다 - 그것은 귀 기울이는 방식이 아니다.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야, 여성적이라. - 오소 법구경 2권 본문 중에서 -

부록: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CD(60분)  
오소 법구경 시리즈 1권에는 마치 대나무 숲 한가운데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연주곡 CD가 들어 있습니다.

법구경 시리즈 1~12

현재 1~6권까지 출간되었으며, 7권~12권은 매달 계속 출간됩니다.



신간!!! 오소 | 신국판 | 각 권 12,000원

